

세계유산 버스로 떠나는 선암사와 순천만습지의 특별한 여정

순천시, 2025 세계유산축전 선암사·순천갯벌 버스투어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김준선)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2025 세계유산축전 선암사, 순천갯벌' 버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투어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갯벌을 하루에 모두 탐방하는 일정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10분, 순천역 시티투어 버스 승강장에서 출발한다.

첫 행선지인 천년 고찰 선암사에서 사찰 순례와 AR-VR 등 실감형 공연이 결합된 '만일(萬日)의 수행'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투어 참여자는 일주문에서 시작해 대웅전, 불조전, 무우전, 응향각, 설선당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따라가며 각 구간에서 AR-VR 영상을 차례로 만난다.

고요한 산사의 공기와 절정의 향, 종소리와 꽃잎 날림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 여행

하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하며 전통과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누구나 여행자의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오후에는 순천만습지로 이동해 습지생태 AR 미디어아트 '갯벌의 사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무진교 일원 AR 영상을 통해 순천만습지 사계절의 이야기를 흑두루미, 쫄꼬이, 철새 등으로 표현해, 무직비디오처럼 즐길 수 있다. 또한 퍼펫 음악극과 테크길 퍼레이드를 통해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몰입하는 복합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버스투어는 축전기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12회가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회당 18명씩 접수받고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사전예약은 순천세계유산축전 공식 홈페이지(<https://scwhf.com>) 또는 축전사무국(061-753-2480)을 통해 가능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버스투어를 통해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갯벌의 색다른 매력을 오롯이 느끼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정성민 기자



진도군,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판매 행사

행사와 대회 참석자 대상 전복 어가 살리기 할인 행사

진도군이 고수온과 판매저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복양식 어가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청년 사에이치(4-H) 회원 한마음 야영 교육」에 참가한 회원들과 8월 30일에 열린 「제10회 진도군수배 호남권 생활체육 탁구대회」, 「제20회 진도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청정 바다에서 생산되는 진도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복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박지원 국회의원, 박규례 진도군의회의장과 군의원, 김인정 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전복 소비 촉진 행사에 힘을 보탰다.

김종석 진도군전복양식협회 회장

은 "진도 전복양식 어가들의 어려움을 알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진도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진도군 전복 어가들도 더 질 좋은 전복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은 우수한 진도 전복의 안정적인 생산, 판로 확보, 진도 전복을 활용한 조리법(레시피)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전복 어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에 진행된 현장 할인판매에 앞서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관내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복 구매 사전접수를 진행해 약 8,700만 원 상당의 전복, 총 2,720킬로그램(kg)이 판매됐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암군, 대봉감 수매 장려금 지원 나선다

금정농협과 협약, 20kg당 최대 1만원 이상저온·낙과 피해 탈기로

낙과로 착과량이 크게 줄었다.

최근 농어업재해보험 조사에서 대봉감 주산지인 금정면의 착과량은, 2024년과 비교해 약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을 덜고, 소득 보전을 위해 이날 협약이 마련됐다.

나아가 두 협약기관은 수확 전 발매기 판매인 '포전매매' 같은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막고, 수급 물량 부족 해소, 가격 불안정 완화 등으로 농가가 합리적 가격에 대봉감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이상기후 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대봉감 농가를 돕기 위해 금정농협과 함께 협약을 마련했다. 대봉감 농가 지원과 유통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생계비, 가공품 출하 장려금 등 대봉감 농가 경영 안정 예산 확보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고흥군,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 추진

생명을 살리는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 10월까지 신청 접수

군은 총 5억 1,2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등록 어선 3,036척을 대상으로 약 6,852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입 비용의 80%를 군이 지원하며, 어업인은 1벌당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고흥군에 등록된 허가 어선, 관리선, 낚시어선의 소유자이며,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된 승선원 명부의 실제 최대 승선 인원수까지 구명조끼를 지원한다. 단, 1인 승선원 신고의 경우 2벌까

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0월까지이며, 고흥군 관할 수협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습관"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업인의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어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구례지역자활센터, 깨끗한 경로당 만들기에 기여

가득사업단(청소·방역 등)에서 진행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대상경로당 30개소를 추천받아 9월부터 10월까지 2회씩 방문, "경로당 크린케어"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햇살가득사업단은 경로당 내 소독방역과 냉·난방기 청소서비스뿐만 아니라 경로당 내 취약 구역을 분석하여 청소·

탈취 등 종합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민 구례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구례군 내 경로당이 마을의 문화와 소통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운영 중

인 구례지역자활센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구례군 주민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례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061-781-7970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장흥군, '문학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9월 22일 개강, 문학해설사 양성 교육 및 실습 운영

장흥군은 오는 이달 초부터 오는 12월까지 '장흥 문학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수강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문학 자산을 해설 콘텐츠로 체계화하고 방문객에게 장흥 문학을 전문적으로 전달할 해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모집 정원은 20명 내외로,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누리집(www.jangheu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9월 16일(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9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하며, 문학 이론과 지역 문학사, 문

학 관광 해설 기법, 해설 시연 및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문학·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고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장흥군 거주자, 문학 전공자 및 유사 활동 경력자를 우대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문학관, 작가 생가, 작품 배경지를 하나의 서사로 엮는 양질의 해설을 통해 장흥을 찾는 문학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벨 문학 도시 장흥'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